

눈덩이 복지예산에 공간 거덜...“쌓이는 빚 더는 못 버틴다”

지방 복지재원 어떻게...‘복지 디폴트’ 선언 나왔다

기초연금과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 관련 대선공약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자치단체의 지방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양 시도는 매년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리를 위한 중요 현안사업마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광주 재정자립도 20년 만에 반 토막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1.0%에서 올해 36%까지 급락했다.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이다. 매년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등을 통해 충당하다 보니 지방채무도 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시 산하기관의 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빚은 1조6000억원이나 된다.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해야 할 복지비용은 해마다 급상승하고 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0년 29%에서 2014년 34%로 5% 포인트가 늘었다. 예산액만 놓고 봤을 때는 8312억원에서 1조2340억원으로 4년 만에 4028억원이나 증가했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2017년 기준으로 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39%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악한 재정 사

정 때문에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등을 재검토하는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이 같은 기본 복지비 외에 순수 시비로 298억원에 이르는 기초연금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내년에는 200여억원이 증가한 69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만0~5세 영유아 보육예산으로 총

■광주시

지방채무 1조6000억 달해

재정자립도 36%로 반토막

주요 현안사업 잇단 재검토

1759억원 중 시비 349억원과 구비 161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기준으로 1조7231억원의 사용 가능 재원(가용재원) 중 인건비 등 필수재원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1154억원에 불과하며, 복지비 등이 증가하면 더욱 줄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곳에 사용가능한 재원인 가용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역 현안사업은 추가가 빚을 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 27개 시·

군·구 가운데 5분의3에 해당하는 16곳(전남 15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전남, 복지부담에 미래산업 투자도 밀려=올해 전남도의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조9172억원이 책정됐다. 전체 예산은 5조8031억원으로 2150억원이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오히려 192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매년 복지예산은 늘어 전체 예산의 33%를 점유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전남도

복지예산 점유율 33%

15개 시·군 인건비도 못쥘

미래산업 투자 꿈도 못꿈

2500억원이 더해져 전체적인 복지 비율은 36%로 3%포인트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지권이 대통령선거 등에서 선심성 복지공약을 내놓고, 그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력이 열악한 전남의 시·군들이 이러한 예산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경우 지난 2012년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2013년 전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조중훈 순천시장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1년 822억원이었던 지방비 부담은 2012년 936억원, 2013년 114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 7월 노령연금기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난 뒤 전남도의 관련 지방비는 올해 303억원(도비 60억원 시·군비 243억원), 내년 667억원(도비 133억원 시·군비 534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복지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반시설 투자 등 미래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결국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특히 발전의 정도가 더디고 재정이 열악한 전남지역 시·군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연합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특정 의원 위한 자리 될라”...전남 일부 의원들 어깃장?

여야 지역국회의원 회동 연기 배경 놓고 뒷말

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광주·전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 간담회가 갑자기 연기돼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다. 오후 2시 본회의가 있어 끝나면 바로 만나는 게 서로 편하다는 이유로 3시에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45분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의실에서 기자들에게 간담회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임 의원의 관계자는 “의원님이 모임 취소 사실을 알려와 기자들에게 통지한 것”이라며 “전남지역 의원들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해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 간담회는 주최 측이 누구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뚜렷한 얘기가 없이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은 임 의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임 의원은 박주선 의원의 제안에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주최 측이 누구인지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주영순 의원이, 야당에서는 광주지역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뜻을 밝혔고 전남지역 의원들도 상당수는 참석하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이상 기류가 나타난 것은 전남일 2일 오후께. 전남지역 일부 의원들이 어떤 모임이나, 누가 주도하느냐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등 불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어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전남지역 의원들이 잠시 만나 의견을 교환한 뒤 연기를 결정하고 임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임 위원장도 ‘반쪽 간담회’를 열 수는 없어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서는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결실을 누가 가지느냐를 갖고 보이지 않은 신경전을 벌인 결과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즉, 지난 7·30 재보선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보이지 않은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이렇듯 의원을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논리가 전남지역 일부 의원들의 발길을 묶는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석 위원장은 “전남지역 의원들 일부가 모임의 내용을 정확히 몰라 사전에 새정치연합 의원들끼리 한번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새누리당 의원을 초청하는 게 순리라는 의견이 많아 간담회를 연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내현 위원장은 “보다 내실있는 간담회를 위해 잠시 연기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모 의원은 “이렇게 지역 일이 안 되게 해놓고 정권이 차별한다고 하러나”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엔날레 전시관 거대한 문어 충격? 감동?



(81) 트롬프 리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재현해서 이 대상과 비슷하게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통적인 회화의 개념이다. 실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최고의 회화는 가치와 참재가 날아든 슬거의 소나무 그림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제우스상과 파르티오스의 에피소드도 놀라운 화가의 솜씨를 보여준다.

제우스상이 그린 포도를 새들이 진짜인 줄 알고 쪼려고 했다. 라이벌 파르티오스는 “나는 새뿐만 아니라 사람도 속일 수 있다”고 자랑한다. 파르티오스의 작업실에 초대받은 제우스는, 파르티오스가 가리킨 커튼 뒤에 있는 그림을 보려고 커튼을 열려고 했다가 곧 자신

이 속았음을 깨닫는다. 바로 그 커튼이 그림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그림을 실제 사물로 혼동하게 만드는 기법인 트롬프 리유(눈속임)의 대표적인 일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4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는 전시관 전면 파사드에 내걸린 영국 작가 제러미 델러(1966~)의 거대한 문어 이미지에서 시작한다. 불타는 비엔날레 건물에서 탈출하는 문어 모양의 트롬프 리유(trompe-l'œil) 배너는 매우 사실적인 묘사로 드라마틱한 착시를 야기한다. 작가는 한국 사회에서 ‘문어발 기업 확장’ 등의 부정적인 문어의 이미지가 서양에서도 정치적 풍자나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착안하여 광주의 역사와 현재를 고려했다고 한다. 경쾌한 형식으로 제도나 기관을 비판하는 이 작품은 미술관이나 갤러리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반대해 온 미술운동의 역사도 암시하고 있다.



제러미 델러 작 ‘무제’

많고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지고 마음이 가는 매력적인 작품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서양미술사의 재발견’의 저자 미술사학자 다니엘 아라스는 “충격이나 놀라움과 같은 감동, 시간과 함께 지속되는 경험을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새로운’이 주는 감동으로 그 의미를 곁들여 하는 광주비엔날레는 고전주의적 명제인 트롬프 리유를 비롯 신사실주의, 미니멀리즘, 팝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시각 경험의 장을 선사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참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대 교부

경품안내

-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 2등 드림세탁기 3명
- 3등 제습기 9명
- 4등 쿠키압력밥솥 12명
- 5등 자전거 12명
-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 8등 이차상 1200명

*동급사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이벤트추첨을 위한부품

서양새마을금고

서울본점 671-5000 (KBC광주영광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독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로예회관

사랑의 품도리쌀 500가마

희망 장학금 2,400만원

소화기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독거노인 소화기 100대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광주지역 자산 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본점 671-5000
주유사업소 720-2880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전세 정기예금 관리 원 3%)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